

제9회 환태평양지역 한국학회 학술회의 하노이 국립대. 인문사회과학대학교 Nguyen Van Khanh학장님의 연설

존경하는

-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임홍재대사님
- 귀빈여러분, 베트남과 세계 각국의 과학자 여러분

최근 세계 경제가 많은 변동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는 능동적인 발전전략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는 환태평양지역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립과 발전과정에서 유사한 아시아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각국은 각각 독특한 점을 남겼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세계 2차대전 후부터 특히 “아시아의 4대 호랑이”라고 불리는 것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한류”가 생겨 더욱 더 세계에 한국 및 한국사람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경제발전 및 문화발전은 오늘날 Dynamic Korea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환태평양지역에서 한국학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아시피 세계 2차 대전 이후 특히 1960-1990년대에 한국은 산업화와 더불어 급속한 성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특별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현상과 관련된 연구,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동일한 점은 문화 및 교육 power란 것입니다. 한국은 적합한 교육정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이 있는 흔치 않은 나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강점과 함께 한국은 교통인프라증진, 건설발전, 수로확대, 저가 해양운송확립 등에 노력함으로써 세계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기존의 강국인 미국, 일본, 서구지역나라들이 독점한 자동차산업, 선박, 전자, 통신 등의 영역에서 한국은 위세를 확립하였습니다.

경제발전과정과 함께 한국은 문화발전에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썼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한국은 문화가 발전한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패션, 음악, 화장품 등 유명한 엔터테인먼트는 한국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왔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 나라, 특히 생활방식과 문화적 유사점이 많은 아시아에 한국문화를 소개해 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 아시아에서의 한국 위세는 급격히 올라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무역규모상승, 유학과 노동수출에 인한 인력교류, 특히 문화교류활동 확보를 통해 아시아 국민은 한국의 놀라운 발전 현상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었습니다.

경제와 문화 상호관계를 잘 이해하고 유지함으로써 한국은 민족적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는 모든 발전의 기초라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한국의 발전노선과 모델은 과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어 다른 국가에서 현실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배움, 연구 요구에 응하기 위해 한국정부를 비롯한 한국학 중앙연구원은 환태평양 지역에 한국학 연구 기관 설립, 발전 사업에 많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하는 “제9회 환태평양지역 한국학회 학술대회”는 지역적 한국학발전 사업의 하나인 중대한 프로그램입니다. 학술회의의 목적은 “아시아에서 본 한국 및 한국학”에 대한 포괄적 시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한국학연구자들은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문화와 한국문화, 역사상 아시아와 한국의 충돌과 협력경험, 미래의 도전과 전망 등입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달성한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의 아시아에서의 한국학을 전망하고 예측할 기회가 될 겁니다.

이러한 의미와 목적에서 학술회의 운영위원회, 인문사회과학대학대를 대표하여 “제9회 환태평양지역 한국학회 학술회의”란 국제 워크숍의 개막식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지난 “제8회 환태평양지역 한국학회 학술회의” 운영위원회장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저희 인문사회과학대학교를 믿어주시고 이 중요한 학술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잘 협조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술회의를 지지하고 참석해주신 귀빈여러분, 과학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운영위원회와 학교를 대표하여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임홍재대사님 바쁘신 와중에도 학술회의의 개막식에 참석해주시고 지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빈여러분, 각국에서 오신 과학자, 베트남과학자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기대합니다.